

불교신문 사장 이취임식 치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불교신문 제 43대·44대 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임을 내려 놓는 수불스님에게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소임을 맡은 제44대 사장 성직스님이 전임의 공적을 이어 불교신문을 더욱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60년 창간된 불교신문은 종단에서 발행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언론매체로 종단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상세히 보도하여 종도는 물론 불자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수불스님은 재직하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양질의 신문 제작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구독자 확장을 위해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결과 불교신문은 만성적인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하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 포교원과 공동으로 독자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짧은 기간에 2000여부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추어 문자서비스 발송과 교계 언론 최초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자와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밖에도 매월 한차례 영어불교신문을 발행하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을 보도하는 한편 각종 종단 기구나 사찰, NGO 등과 함께 공동

사업을 전개해 종단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불교신문은 시대와 종단 내외의 환경을 읽어가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불스님을 비롯한 역대 사장스님들의 노력을 잘 계승하여, 보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불교신문으로 한 층 올라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교신문 발행인으로서 불교신문이 종단과 함께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불교신문 임직원들도 신임 사장스님 및 주간 일감스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종단 안정과 발전, 그리고 불교신문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수불스님과 장적스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불교신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종단이 나아가는 일선에서 불자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파하고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2013년) 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